

강원도 영춘 맷기:

# 단종문화제로 알아보는 영월의 역사와 도시 정신

문화인류학과

202413405

## <목차>

###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II. 본론

1. 산과 물로 둘러싸인 폐쇄적 공간: 영월의 자연지리와 역사적 배경
2. 차가운 공식 역사와 따뜻한 민간 신앙: 단종 신격화의 비공식적 서사
3. 억눌림과 해소: 복위 전후 민중 의식의 변화와 문화적 투영
4. 비애의 해소와 감정의 승화: 단종문화제
5. 축제의 사회적 과급력: 영월 발전의 원동력

### III. 결론

1. 영월의 도시 정신과 내면의 본질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나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 계속 고민해 왔다. '영월에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채, 심지어 강원도의 많은 곳을 아직 밟아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나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도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의 아쉬운 점을 솔직하게 고백해야겠다. 현재의 객관적인 조건 때문에 나는 아직 직접 영월 땅을 밟고 현지 조사를 하지 못했다. 이 도시에 대한 나의 모든 인식은 여전히 전적으로 학술 논문, 역사 문헌, 향토지, 그리고 인터넷 다큐멘터리 영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중간 보고서에서 나는 영월의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변천, 그리고 폐광촌에서 '지붕 없는 박물관 고을'로 탈바꿈한 과정을 정리한 바 있다. 객관적인 역사는 공정하고 차가울지 모르지만, 활자와 영상으로 구성된 사료들 속에서 나는 객관적 사실을 뛰어넘는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번 최종 보고서에서는 시각을 조금 달리하여, 영월을 대표하는 '단종문화제'를 핵심 연구 부분으로 삼고자 한다. 영월의 비극적인 역사를 알아보는 것에서 출발해 이 도시의 영혼에 다가가고 싶다. 나아가 영월 사람들과 이 도시, 그리고 비운의 군왕 사이에 수백 년을 뛰어넘어 이어진 정서적 유대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영월이라는 도시의 진정한 정신적 핵심을 탐구하고자 한다.

## II. 본론

### 1. 산과 물로 둘러싸인 폐쇄적 공간: 영월의 자연지리와 역사적 배경

영월의 역사적 숙명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지리적 환경을 알아야 한다. 영월은 강원도 남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내륙 산간 지역이다. 지도상으로 서쪽은 원주와 제천, 북쪽은 평창과 정선, 동쪽은 태백, 남쪽은 단양 및 영주와 맞닿아 있어 여러 지역을 잇는 지리적 중심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곳의 지형은 극도로 폐쇄적이고 험준하다. 태백산맥, 소백산맥, 차령산맥이 교차하여 평지가 매우 적다. 평창에서 발원한 평창강과 주천강이 이곳에서 만나 서강을 이루고, 다시 유명한 동강과 합류하여 남한강의 본류가

된다. 더욱 신기한 점은 영월이 넓은 석회암 지대(조선누층군)에 자리 잡고 있어 오랜 세월 물에 녹으며 전형적인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했다는 것이다. 천연기념물 제 219 호로 지정된 '고씨동굴'은 중유석의 형태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당시 고씨 일가의 피난처가 되기도 했다. 강물이 땅을 깊게 파고들어 형성된 '한반도 지형' 역시 대자연의 신비로움을 잘 보여준다.

이토록 높고 험한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폐쇄적 지형은 고대에는 방어에 유리한 군사 요충지였으나, 조선 시대에는 대자연이 직접 만든 '천연 유배지'가 되었다. 험준한 산수는 외부의 소음을 차단함과 동시에, 훗날 단종의 비극이 일어나는 잔혹한 지리적 복선이 되었다.



## 2. 차가운 공식 역사와 따뜻한 민간 신앙: 단종 신격화의 비공식적 서사

1457년, 조선 제 6대 임금 단종은 숙부인 수양대군(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 청령포로 유배되었으며, 결국 17세의 어린 나이에 관풍헌에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권력을 찬탈한 세조의 측근들이 편찬한 공식 사료인 『조선왕조실록』에서 단종의 모습은 흐릿하고 폄하되어 있다. 세조 시절에는 공식적으로 단종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고, 심지어 단종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조차 역모로 몰려 참형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역사의 현장인 영월은 이 비극을 인간적인 따뜻함으로 품어 안았다. 단종의 생애 마지막 순간이 보여준 고독과 억울함, 그리고 처참한 죽음은 영월 백성들의 마음을 깊이 찔렀다. 정치적 탄압 때문에 겉으로 슬픔을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성종 연간에 이르러 민간에서는 단종이 석가모니처럼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거나 '겨드랑이에 비늘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는 단종을 부처와 동일시하며 비범한 신성을 부여하려는 시도였다.

공식적인 역사의 서사는 냉혹한 '폐위'였지만, 지나간 기다림 속에서 영월은 자신들만의 '비공식적 서사'를 잉태했다. 백성들은 단종의 비참한 죽음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은 단종의 육신은 죽었으나 영혼은 소멸하지 않고 백마를 탄 채 태백산으로 향하여 그곳을 수호하는 '태백산 산신령'이 되었다고 믿었다. 태백산으로 향하는 옛길을 따라 연하리, 석항리, 중동면 등지에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성황당과 산신각이 들어섰다. 비극적인 정치 인물을 지역의 수호신으로 승화시킨 이 현상은 공식적인 정치 서사에 대항하는 하층 민중의 문화적 전략이었다. 그들은 현실에서는 지켜주지 못했던 어린 군왕을 자신들의 정신세계 속에서 영원히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다.

### 3. 억눌림과 해소: 복위 전후 민중 의식의 변화와 문화적 투영

억눌렸던 감정은 지나간 세월을 거치며 발효되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난 지 241년이 지난 1698년(숙종 2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단종은 정식으로 복위되었고, '단종'이라는 묘호와 '장릉'이라는 능호를 받게 되었다. 단종의 복위는 민간의 숭배를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었으며, 영월 백성들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은 폭발적으로 분출되어 지역의 전설, 민요, 민속놀이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 1) 전설의 변이와 은유

전설은 무언의 문화유산과 역사적 인물을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영월 백성들은 전설을 재구성함으로써 단종 복위에 대한 감사함을 교묘하게 숨겨 놓았다.

- <금사하 전설>: 주천면에 전해지는 이 전설은 지극한 효심으로 호랑이를 감동시킨 금사하가 호랑이의 도움을 받아 강을 건너 약을 구하고, 부모님 사후에도 호랑이가 3년간 시묘살이를 도왔다는 이야기다. 전설이 여기서 끝나도 무방하지만, 영월 사람들은 조선 19대 임금 숙종이 승하하자 금사하가 상복을 입고 궁궐을 향해 3년 상을 치렀으며 호랑이도 이를

함께 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역사상 금사하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가 숙종을 위해 시묘를 살았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전설에 굳이 이 내용을 추가한 것은, 단종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 숙종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기 위함이었다.

- <고경춘 전설>: 낙화암에서 몸을 던져 절개를 지킨 영월 관기 고경춘의 전설이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의 본명은 '노옥(魯玉)'이며, 아버지가 단종을 간절히 그리워하며 기도한 끝에 단종 사후 300년 되는 기일에 그녀를 낳았다고 전해진다. 이는 영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단종이 이미 비운의 왕을 넘어 '기자(祈子, 자식을 접지함)'의 직능까지 갖춘 민간 신앙의 신명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 2) 민요 속 대체적 심리 보상

영월의 장례 풍습에는 매우 특별한 민요가 전해진다. 출상 전날 밤, 상여꾼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을에서는 '말백이(말을 먹인다는 뜻)'라는 유희를 벌인다. 일반적인 장례식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손을 맞잡고 둥글게 돌며 선소리를 부르는데, 이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단종의 일대기를 담은 『한양가』나 영월 지역 특유의 <대왕인산요>이다. 단종이 억울하게 죽었을 당시, 최소한의 장례 의식조차 없이 초라하게 묻힌 것에 대해 영월 사람들은 깊은 죄책감과 한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평범한 이웃의 장례식을 빌려 단종의 일생을 노래로 재현하며, 마치 단종을 위한 국장(인산)을 치러주는 듯한 의식을 행한 것이다. 이는 대단히 충격적인 '집단적 트라우마'의 대체적 심리 보상 기제로, 남의 장례를 치르면서 자신들의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 군왕의 넋을 위로한 셈이다.

## 4. 비애의 해소와 감정의 승화: 단종문화제

이처럼 깊게 뿌리내린 민간 신앙과 감정적 축적은 현대에 이르러 영월을 대표하는 성대한 축제인 '단종문화제'로 승화되었다. 1967년 처음 시작된 이 축제의 초기 목적은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이었으며, 1990년에 정식 명칭을 '단종문화제'로 변경하고 매년 4월 마지막 주 주말에 고정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단종문화제는 단순한 관광용 볼거리가 아니다. 이는 '해원(한을 풀)'과 '신명(순수한 기쁨과 발산)'이 융합된 거대한 집단 치유의 의식이다. 제례 행사에서 영월 사람들은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과거 대중 묻혀야만 했던 단종을 위해 장엄하고 엄숙한 조선 시대 국장을 재현한다. 또한, 행사 전야에는 낙화제와 유등제를 열어 충절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던 공녀와 백성들의 넋을 달랜다. 제사 외의 민속놀이 프로그램들 역시 영월 사람들의 순박한 역사의식을 깊이 반영하며, 복위 전후 민중 심리의 생생한 투영이라 할 수 있다.

- **능마을 도깨비놀이:** 장릉이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기 전까지, 산속의 도깨비들이 단종의 무덤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켰다는 전설에서 유래했다. 이는 가혹한 정치적 탄압 속에서 공개적으로 제사를 지낼 수 없었던 백성들이 '도깨비'라는 이름을 빌려 왕릉을 수호하려 했던 은밀한 소망을 은유한 것이다. 공식적인 제사가 부활하자 도깨비들이 물러났다는 대목이 인상적이다.
- **쌍다리 놓기 놀이:** 단종 복위 후, 강원도 관찰사는 부임 시 반드시 장릉을 참배해야 했다. 관리를 접대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경제적 부담이었지만, 주천면 백성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힘을 모아 강에 두 개의 다리를 놓아 맞이했다. 관찰사의 참배가 곧 단종의 억울함이 완전히 씻겨졌음을 의미한다고 믿었기에, 그들은 '외로운 대왕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기꺼이 그 짐을 짊어졌던 것이다.
- **띠놀이:** 단종은 닭띠(신유년)로 태어났다. 백성들이 모여 닭띠로 태어난 사람들의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다가, 열두 가지 동물 탈을 쓰고 동물의 몸짓을 흉내 내며 서로 장난을 치는 놀이이다. 겉으로는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실은 백성들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단종의 비참한 운명에 대한 평계를 찾으며 그 무거운 역사의 짐을 해학으로 풀어내려 한 것이다.

#### 4. 축제의 사회적 파급력: 영월 발전의 원동력

자료 조사가 깊어질수록, 나는 단종문화제가 영월에 갖는 의미가 단순한 기념이나 관광 관람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축제는 영월이 역사적

비에와 산업적 쇠퇴라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를 구원하고 부활하게 만든 '정신적 엔진'이었다. 그것은 여러 측면에서 영월의 발전 궤적을 깊이 있게 변화시켰다.

첫째, **지역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유대감의 매개체**이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영월 백성들은 단종에 대한 동정과 제사를 통해 집단적 기억을 형성해 왔다. 단종문화제는 수많은 군중의 협력이 필요한 '조선 시대 국장 재현'이나 '취죽다리기' 등을 통해 흩어져 있던 마을과 주민들을 단단하게 이어주었다. 이러한 공동 참여의 의식은 내부의 결속을 극대화했으며, '충의'와 '온정'이 영월인의 공통된 문화 유전자로 자리 잡게 했다.

둘째, **무형문화유산을 활성화하는 '살아있는' 플랫폼**이다. 수많은 전통 무형문화유산들이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 단종문화제는 이 귀중한 무형 자산들에게 그것을 뽐낼 수 있는 전시 공간을 제공한다. 장엄한 궁중 제례 악무든, 향토색 짙은 도깨비놀이와 쌍다리 놓기 놀이든, 모두 이 축제의 무대에서 되살아나 연희되고 있다. 덕분에 오래된 문화가 문헌 속에 박제된 사어가 아니라, 진짜로 만질 수 있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생생한 기억이 되었다.

셋째, **'문화 경제'를 이끌며 자원형 도시의 성공적인 전환을 도왔다**. 영월은 한때 한국 산업화를 떠받치던 '에너지 심장'이었으나, 1990년대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광산들이 문을 닫으며 인구 급감과 경제 붕괴라는 존망의 위기를 맞았다.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단종문화제라는 문화적 IP가 영월로 엄청난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이를 발판으로 영월은 버려진 학교와 폐광 시설을 박물관으로 개조하여 '지붕 없는 박물관 고을'을 성공적으로 조성해냈다. 문화 축제는 이 후기 산업화 시대의 폐광촌에 완전히 새로운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상처의 현대적 치유를 실현했다**. 단종이 영월에서 겪은 참혹한 죽음은 정치적 박해로 얼룩진 민감한 역사다. 그러나 영월은 그 상처를 덮어두지 않고, 문화제라는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의식을 통해 역사적 '트라우마'를 집단적 '치유'로 전환했다. 포용과 연민이라는 문화적 태도를 대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영월은 따뜻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외부에

전달하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단지 '유배지'나 '폐광촌'으로만 각인되었던 고정관념을 멋지게 깨뜨렸다.

### III. 결론

#### 영월의 도시 정신과 내면의 본질

수천 자에 달하는 문헌 중심의 보고서를 완성하면서, 영월이라는 도시에 대한 나의 인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처음에 나는 영월이 그저 카르스트 지형의 험준한 산수에 갇힌 슬픈 유배지이거나, 시대의 변화에 밀려 쇠락해 가는 폐광촌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연지리에 대한 분석과 단종문화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나는 이 도시의 가장 순박하면서도 굳건한 정신적 내면에 닿을 수 있었다.

영월의 도시 정신은 '극한의 공감 능력과 순박한 충의'다. 약자와 비극적 운명에 처한 이를 향한 평범한 백성들의 깊은 동정심이다. 그들은 정치적 폭압 속에서도 기꺼이 신화를 지어냈고, 이웃의 장례식을 빌려 군왕을 위한 만가를 불렀으며, 기나긴 세월 동안 권력 싸움의 패배자를 수호신으로 떠받들었다.

동시에 그것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이기도 하다. 단종의 육신은 사라졌으나 영월 사람들의 믿음 속에서 태백산 산신령으로 부활했듯이, 경제가 무너졌을 때도 영월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고 문화의 힘을 통해 이 도시를 과거 석탄을 캐던 '광산(鑛山)'에서 찬란히 빛나는 '광산(光山)'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비록 전적으로 책상 위에서 수집한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완성되었지만, 역사와 문화가 가진 힘은 이미 종이를 뚫고 내 마음속에 전해졌다. 단종문화제는 단순한 지역 축제가 아니라, 영월이라는 도시의 따뜻하고 포용력 있으며 꺾이지 않는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다. 언젠가 다가올 미래의 어느 날, 내가 진정 강원도 영월 땅을 밟고, 기이한 카르스트 지형을 두 눈으로 보며, 동강의 맑은 바람을 느끼고 장릉 소나무 숲 사이로 부는 낮은 속삭임에 귀 기울이며, 활자 속에서 깨달은 이 모든 것들을 내 발걸음으로 직접 확인해 볼 날을 고대한다.

## 참고문헌

- 강원도민일보, 2026. "지붕없는 박물관 창조도시 영월."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401973> (접속 2026. 6. 4.).
- 영월문화원, 2026. "말뼉이와 진사놀이."  
[http://ywcul.or.kr/bbs/board.php?bo\\_table=5\\_sub3&wr\\_id=110](http://ywcul.or.kr/bbs/board.php?bo_table=5_sub3&wr_id=110) (접속 2026. 6. 4.).
- 영월문화원, 2026. "영월읍 영흥리 - 경춘비석."  
[http://ywcul.or.kr/bbs/board.php?bo\\_table=5\\_sub4&wr\\_id=53](http://ywcul.or.kr/bbs/board.php?bo_table=5_sub4&wr_id=53) (접속 2026. 6. 4.).
- "영월지역 민요의 현대적 수용 양상." (접속 2026. 6. 4.).
- 지역 N 문화, 2026. "능마을 도깨비놀이." <https://ncms.nculture.org/folkplay/story/7339>  
(접속 2026. 6. 4.).
- 지역 N 문화, 2026. "쌍다리 놓기 놀이." <https://ncms.nculture.org/folkplay/story/9595>  
(접속 2026. 6. 4.).
- 한국고전연구학회, 2026. "문화적 기억으로서의 단종유배 관련설화 연구."  
<https://journal.kci.go.kr/kcl1994/archive/articlePdf?artid=ART002782697> (접속 2026. 6. 4.).
- 한국뉴스특보, 2026. "600년 전, 그곳에는 어린 왕이 있었다."  
<https://www.ktsketch.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68> (접속 2026. 6. 4.).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6. "띠놀이."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7229>  
(접속 2026. 6. 4.).
- KBS 뉴스, 2026. "축제로 승화된 추모제...영월 단종문화제 개막."  
<https://www.youtube.com/watch?v=LK004FCwrRA> (접속 2026. 6. 4.).